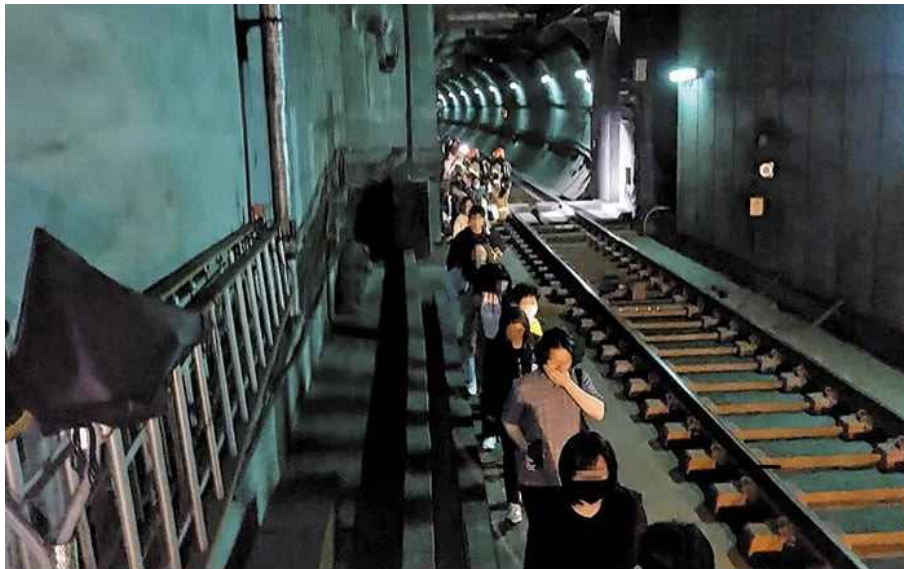




# 나날이 어린이 신문

“먼저 가세요. 전 괜찮아요”



승객들이 지하 통로를 따라 탈출 하고 있어요. 출처:경찰청

5월 31일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. 한 남자 앞에서 갑자기 불길기 확 일어났어요. 남자가 바닥에 옷을 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예요. 불은 순식간에 타올라 연기를 내뿜었어요. 10초도 되지 않아 지하철 안에 연기가 짙어졌어요. 지하철에는 420여 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.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상황이었어요.

사람들은 당황했지만, 침착하게 지하철 안에 있는 비상 전화기를 들고 기관사에게 불이 났다고 알렸어요. 기관사는 급히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소화기로 불을 꺾어요.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어요. 하지만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. 사람들은 연신 기침을 해댔어요.

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내려 지하 통로를 따라 탈출하기 시작했어요. 지하 통로에도 시커먼 연기가 퍼

져 있었기 때문에 늦게 탈출하면 연기를 마셔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. 하지만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고, 힘이 약한 노약자, 여성들이 먼저 대피할 수 있게 서로 양보했어요. 어떤 사람은 걷기 힘든 할머니를 업고 빠져나왔어요.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 덕에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 없이 모두 탈출할 수 있었죠. 사람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.

불을 낸 사람은 60대 남자였어요. 아내와의 이혼 문제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해요. '방화'라는 큰 죄를 저지른 그는 구속돼 감옥에 갇혔어요.

2003년 대구에서도 지하철에서 불이 나 192명이 목숨을 잃은 슬픈 일이 있었어요.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한 덕분에 이번에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.

\* 신문 기사를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.

문해력 쑥 

오늘의 단어

**기관사** 물건을 활동하게 하는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. 배나 기차를 움직이는 사람

**노약자** 늙은 사람과 약한 사람

**방화** 일부러 불을 지름

**대비** 앞으로 있을 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

독해력 쑥 

내용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.

사고력 쑥 

만약 여러분이 지하철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?